

3) 고려시대

고려로 오면서 이 지역은 급속히 발전된다. 이 지역 출신인 박영규(朴英規)가 왕건을 도와 고려 개국에 큰 공을 세움으로써, 전남지역에서도 부속 군현을 가장 많이 거느린 승주목으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각종 건축물이 건립되어 대읍의 면모를 갖추고, 인구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많은 민가들이 들어섰다. 성곽 축조는 물론이고 객사(客舍), 아사(衙舍) 등을 비롯하여 누(樓), 정(亭) 그리고 지방 호족들의 상류가옥들도 많이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고려 때의 주택 유구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예로부터 이 지역에는 많은 불사의 조영이 성행했고, 연자루나 환선정에 대한 기록이 전해지므로 이때 대규모의 고급건축이 많이 조영되었음이 틀림없다. 특히 누정의 건립에서 고상식 건축인 마루구조가 상당히 발달했을 것이나, 서민들의 주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다만 일부 지배층과 호족세력들이 당시 개성에 건립되던 대규모의 상류주거를 모방한 주택에서 살았을 것이다. 송나라 사신인 서경(徐兢 : 1091~1153)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부잣집은 기와를 덮었으며 침상 앞에 낮은 평상을 놓았는데 삼면에 난간이 둘러 있고 비단 보료를 깔았으며, 큰 자리를 마련하여 편안하기 이를 데 없어 전혀 이풍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온돌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대청마루에 중국풍의 의자·침상들을 사용한 입식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집은 마치 개미굴이나 벌집 모양으로 보이고 지붕은 짙으로 덮었으며, 대부분 흙침상으로 땅을 파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고 했듯이 서민들은 토담집 또는 막살이집 규모에 온돌을 깎 영세한 주거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이 지역의 살림집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